

전례 없던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

ACC 창작자 인큐베이팅 쇼케이스

16일·17일·20일 예술극장

5개팀 공모...체계적 창작 지원

다큐 연극·퍼포먼스 등 선보여

‘ACC 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 쇼케이스’가 16일, 17일, 20일 3일 동안 ACC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ACC에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신진 공연예술 창작자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ACC 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만의 차별적인 특성은 창작자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연의 창작과 제작 그리고 실연 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을 구축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번 쇼케이스는 지난 8월 공모를 거쳐 안무가 이상훈, 복합예술그룹 ‘우분투’, 전자 음악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언해피서킷’, 영화감독 최원준, 임철민 등 총 5팀이 선정됐다.

이들은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약 4개월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자신들만의 실험적인 작업을 보여줄 예정이다.

20일 오후 7시 30분에는 ACC 예술극장 내 아틀리에 1 공간에서 최원준의 ‘나의 이상국 理想國’ 작품을 선보인다. 최원준은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으로, 대표작품은 ‘텍사스 프로젝트’, ‘타운하우스’,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있다.

작품 ‘나의 이상국 理想國’은 적도기나의 초대대통령이자 아프리카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마시야스의 딸, 모니카 마시야스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실제로 6세에 북한으로 보내져 김일



복합예술그룹 ‘우분투’가 1972년도에 쓰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 ‘분실물 보관소에서의 연설’을 모티브로 도시 현상을 분석한 작품 ‘도시기록프로젝트-분실물 보관소에서의 연설’

성 주석의 수양딸로 15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으나 현재는 유령에서 거주 중이다. 아프리카인이며, 북한인이거나, 또한 스페인인이기도 한 그녀의 복잡한 정체성을 다큐멘터리 연극의 형태로 풀어낸다.

16일 오후 4시 극장1-2에서 열리는 임철민의 ‘아광’은 영화와 극장을 중심에 두고 영화와 공연예술의 형태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포맷으로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 5시 극장1-3에서 는 우주의 원리를 융·복합 퍼포먼스로 해석한 이상훈의 ‘웜홀 Worm Hole’이 열린다. 작품 웜홀(Worm Hole)은 우주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물리적인 원리를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과 ‘블랙홀’, ‘화이트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에너지가 제시할 방향을 나타내는 융복합 퍼포먼스다.

이밖에도 인간과 컴퓨터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언해피서킷의 ‘MUSIC OF MEMORIES’와 광주 지역 시민들의 에피소드를 직접 수집한 자료로 제작한 우분투의 ‘도시기록프로젝트 분실물 보관소에서의 연설’ 등 지금까지 접하기 어려웠던 젊은 공연 창작자만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만 12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영·호남 성악가들 우정의 무대 내일 금호아트홀

영·호남의 성악가들이 모여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음악회는 이 지역 중견 성악가 베이스 최철, 소프라노 나혜숙 그리고 부산의 성악가 테너 허동권이 함께하는 무대다.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연주에 출연하는 3명의 성악가는 이태리 로마에서 같이 유학시절을 함께했던 동료들이다.

베이스 최철 교수는 부산 스페이스 움에서 가졌던 테너 허동권과 우정의 무대를 가졌던 인연으로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

공연 레퍼토리는 ‘이태리 칸초네 물망초’, ‘무정한 마음’, ‘넌 왜 울지 않고’, 조두남의 ‘그리움’, 김동진의 ‘목련화’, 박판길의 ‘산노을’, 크리스마스 성가곡 등이다.



베이스 최철



소프라노 나혜숙

최 교수는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과 광주를 오가며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워가는 성악가들의 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아쉬운 2017년을 보내고 희망의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축하음악회에 남치는 행복바이러스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따로, 또 같이’ 문화다양성 소통

전남문화관광재단 18일 행사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따로, 또 같이’ 행사를 오는 18일 오후 5시 남도소리율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계층을 초대해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이’와 ‘다름’, ‘차별’에 대한 줄 저기 캠페인, 문화다양성 퀴즈, 실천 가능한 문화다양성 행동을 선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Illusion 이은결 마술 퍼포먼스팀’을 초청해 공연할 예정이다. 오후 6시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 및 문의는 전화(061-280-5825, 5830)로 가능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크린에 담은 ‘5·18 계엄군’의 이야기

‘기억하라’ 무료 시사회 내일 광주극장

5·18 당시 고교생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계엄군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 ‘기억하라’〈사진〉시사회가 오는 15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광주영상미디어클럽과 희망문화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주관해 만든 이 영화는 광주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생은 나그네길’ 영상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됐으며 영화배우 송영창 씨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이 동참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만들어졌다.

영화는 2017년 5월 어느 봄날, 무등산 중봉 가는 길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 인근 숲 속 여기자기를 피해지며 땀을 흘리는 중년 남자(공수부대 장교 출신)와 5·18 당시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치매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기억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들의 37년 전 5·18에 대한 각자 경험을 인터뷰로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상



영된다. 여기에는 5·18을 소재로 한 극장최초 개봉 영화인 ‘부활의 노래’(1991년)를 제작한 이정국 감독의 인터뷰도 들어 있다. 무료관람. 문의 010-3615-9480. /전문기자 ej6621@

미디어놀이터로 ‘깨비’ 구하러 가자

광주문화재단 신규 콘텐츠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내 ‘미디어놀이터’ 신규 콘텐츠인 ‘깨비구하기’〈사진〉를 새롭게 선보인다.

‘미디어놀이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디어아트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형 체험 전시장이다.

새 콘텐츠 ‘깨비구하기’는 사물인식 멀티터치 센싱 기술에 기반한 활동형 놀이 미디어로 공유의 전통 설화인 도깨비에서 시나리오와 모티브를 차용했다.

이밖에도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미디어놀이터’에는 미디어바다, 아티스트와 나, 360°VR 전망경, 액티브패널, 미디어곤충채집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입장료를 구매하면 ‘깨비구하기’를 포함 9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온라인(인터파크·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예매 가능



하며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062-670-7453~7454.

한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총 6개 공간 중 유료 공간인 ‘홀로그램극장’과 ‘미디어놀이터’의 관람객이 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단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을 방문한 총 관람객이 6만3000명을 넘었으며 일평균 289명, 하루 최대 618명이 방문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아 위한 ‘암암클래식’ 15·21·22일 유·스퀘어 문화관

유·스퀘어 문화관이 15일, 21일,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유아를 위한 맞춤형 음악회 ‘암암클래식’을 연다.

암암클래식은 유·스퀘어 문화관과 한뼘클래식이 4~7세의 유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고 재미있는 형태로 들려주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음악회다.

모차르트, 요나손,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 클래식 음악을 영화, 게임, 발레 등의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주회는 ‘두근두근(감성 클래식)’, ‘살랑살랑(유쾌한 클래식)’, ‘퐁퐁퐁퐁(꿈꾸는 클래식)’, ‘새록새록(애니메이션클래

식)’, ‘심쿵심쿵(콘서트 속 작은 클래식)’, ‘오소도소(변신클래식)’, ‘뽕뽕뽕뽕(협동클래식)’ 등 일곱 가지 테마로 펼쳐지며, 음악을 전공한 전문 아나운서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 공연 마지막 순서에는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문 연주인들과 협연하며, 무대 위의 연주자가 돼보는 기회도 갖는다.

이 날 공연에는 한뼘앙상블의 바이올린 박하늘, 박주영, 비올라 양윤서, 첼로 박성욱, 피아노 손지영 등이 출연하며 소프라노 이승희, 테너 윤승환이 협연한다.

전석 1만원.(1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50% 할인) 문의 062-360-8437. /전문기자 ej6621@

